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6호 [루게 제24354호] 주체102(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였다.

최룡해 동지, 량철성 동지, 김명식 동지, 박태수 동지, 조남진 동지, 황병서 동지, 김동화 동지, 홍영철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지난 10월 중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이곳 군부대의 구잡합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그들의 시신을 모두 찾아 안장해주며 장례도 잘해 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용사묘의 형성안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고 묘비와 판간은 어떻게 만들며 돌색같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묘비들에 용사들의 생전의 모습을 새긴 돌사진을 붙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속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의 절정에 올랐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용사들의 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동행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용사들의 묘를 이속도록 바라보시다가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넣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기에 누워있는 용사들은 모두 자신의 전우,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최고사령관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념원을 풀어야 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지만 전사는 조국의 명령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값높은 희생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길에서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용사들의 혁명정신은 영원히 살아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용사들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묘비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묘비에 붙인 용사들의 돌사진을 하나하나 보시며 사진이 잘되었다고, 금시라도 일어나 반길것만 같다고 격정을 누르시며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비치는 아늑한 곳에 꾸러진 용사묘를 바라보시며 묘를 군부대의

주둔지역에 정하게 하였는데 위치가 참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용사들이 자기들의 체취가 어려있는 군항과 근무생활을 함께 하던 군인들의 모습, 목숨 바쳐 지킨 조국의 바다를 늘 바라보며 누워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해병들도 용사들의 바래움과 부락을 안고 전투임무수행의 항로에 오를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용사들을 안장하고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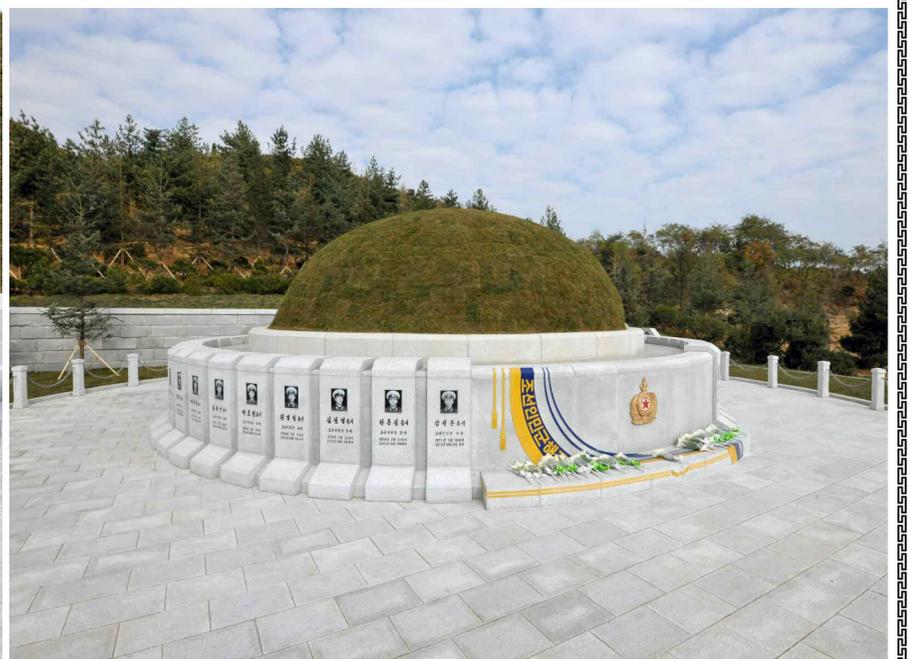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수호는 희생도 각오해야 하지만 용사들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우리결을 떠난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복무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과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초소를 굳건히 지켰으며 전투명령을 묵숨바쳐 집행한 용사들의 위훈과 고귀한 정신세계를 군부대의 해병들은 물론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동지애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위대한 동지애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정지보도반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선택한 길을 갈 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국면으로 몰아가려고 불안장소등을 그럴 세없이 벌리고 있다. 미국이 10월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간으로 남조선과 북조선과 야합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공훈련 《맥스 썬더》를 벌리고 있다. 호전팔들은 약 100대의 비행기와 1000여명의 병력이 동원된 연합공공훈련을 2008년부터 매년 2차례씩 실시하는 정기적인 훈련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반도정세에 전쟁연습이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내외의 우려를 잠재워보려는 구차스러운 꾀변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변하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조선동남해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감행하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적표현으로서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긴장국면의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내외의 노력과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대화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이 실현되었다면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기운이 깃들었을것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정세는 완화가 아니라 전쟁전야의 긴장국면으로 의연히 치닫고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제의를 대하는 미국의 그릇된 태도에 기인된다.

미국도 국제무대에서 조미대화를 운운하고 있다. 요즘에는 당국자들이 나서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그 무슨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

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소리를 높여놓고있다. 그들은 공은 북조선에 가 있다는 소리도 하고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대화를 외울것이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군사적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중지해야만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무슨 《전쟁성서》를 끌어들이며 벌린 해상합동군사연습이나 이번에도 각종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감행하고있는 연합공공훈련이다. 그것은 다 선제공격을 노린 복심전쟁연습이다.

미국은 이번 연합공공훈련의 특징이 가상사나리오에 따라 공중전과 전술폭격임무를 실천처럼 수행하는데 있다고 공개하였는데 이것자체가 그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이 연합공공훈련을 벌린 때마다 상고있는 가상의 공격은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공격이다. 전쟁성서에서 연출되는 작전안은 공 선제공격이다.

미국이 대화타령을 늘어놓는것은 결국 우리의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킨 다음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미국과 남조선과 북조선은 지들이 끊임없이 벌려놓는 전쟁연습이다. 《경계지》이요, 《년례적》이요 하는 수의를 붙이지만 그것은 선제타격에 의한 불의의 침공으로 저들의 불순한 침략적목적의 실현해보려는데 합동전쟁연습의 목적이 있다는것을 확증해준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 역행하여 인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대조선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는 우리에게 군사적압박감을 조성해보려 하고 있다. 미국이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찬사코 무시하고 전쟁성서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군사적행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칼을 끌고 덤벼드는 상대에게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강한 물리적 힘, 감행하고있는 전쟁연습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찾은 교훈이다.

적대세력들이 지속적인 압박공세를 들이댄다고 하여 이미 선택한 길을 버리고 만단을 갈 우리가 아니다.

미국은 끈질긴 핵타격소동, 핵공격행동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하지만 그대위 《무력시위》에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미국의 부분별한 핵방안은 우리를 최대로 격분시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도발행동이 계속될수록 그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강경대응수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그 어떤 핵방위 위협, 압박공세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자주성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부흥을 이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대조선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는 우리에게 군사적압박감을 조성해보려 하고 있다. 미국이 전제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찬사코 무시하고 전쟁성서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군사적행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오산이다. 칼을 끌고 덤벼드는 상대에게는 말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강한 물리적 힘, 감행하고있는 전쟁연습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찾은 교훈이다.

적대세력들이 지속적인 압박공세를 들이댄다고 하여 이미 선택한 길을 버리고 만단을 갈 우리가 아니다.

미국은 끈질긴 핵타격소동, 핵공격행동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하지만 그대위 《무력시위》에 우리는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미국의 부분별한 핵방안은 우리를 최대로 격분시키고있다. 미국의 군사적도발행동이 계속될수록 그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강경대응수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그 어떤 핵방위 위협, 압박공세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자주성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교육이 무르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러진 교육기자들이 사회의 진보적인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갈것만 놓고 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같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전진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문화예술, 높은 체육기술,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성 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분야를 문명국건설의 지위에 올려세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새 세기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노동당의 유쾌하고 발전한다. 농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르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러진 교육기자들이 사회의 진보적인 문화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갈것만 놓고 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같은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전진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문화예술, 높은 체육기술,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성 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분야를 문명국건설의 지위에 올려세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새 세기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노동당의 유쾌하고 발전한다. 농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문명국의 목표를 정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우리 나라에서 전반기 11년제의무교육이 전반기 12년제의무교육으로 이행되고 무상치료제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온 나라를 휩쓰는 체육열풍속에 체육발전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층에 살림집들이 계속 건설되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들이 련이어 일떠서는 등 새 세기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지향에 맞는 문화생활조건들이 날로 완비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지금 조선에는 인민들이 가장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전반기가 펼쳐지고있다고 글은 강조하였다.

《몽골과 조선친선관계의 력사》

몽골의 인터넷통신 인포 몽골리아가 10월 28일 《몽골과 조선친선관계의 력사》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몽골인민후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쥘. 쥘부를 접견하시는데 사진문헌과 전후 몽골을 방문하시고 우리 나라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통신은 2013년은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발전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몽골과 조선의 강화발전은 김일성동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통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 우리 나라 주재 몽골대사인 몽골인민후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쥘. 쥘부, 몽골

통신은 2013년은 몽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발전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몽골과 조선의 강화발전은 김일성동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통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 우리 나라 주재 몽골대사인 몽골인민후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쥘. 쥘부, 몽골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 국 예 서

군사훈련강화조치

중국공무원 교육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국가공공노동 《학생들의 군사훈련의 길을 전진적으로 넓히는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군대와 지방의 각종 유관부서와 단위들이 학생들의 군사훈련사업규정을 더욱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10월 29일 《원격탐지위성-18》호를 좌윤러 예정된 제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위성-2》호(명)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의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한다.

구강장강 제2대교 개통

중국에서 10월 28일 구강장강 제2대교가 개통되었다.

다리의 총길이는 25.193km에 달한다.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농촌주민들의 먹는다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에서 농촌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자치구에서는 올해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35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관 개 면 적 확 장

중국의 하남성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관개면적을 늘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10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2억 5000만㎡의 확장의 물을 끌어 5만개㎡의 확장을 200만무 구 확장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중국의 운남성에서 무정형과

중 국 예 서

군사훈련강화조치

중국공무원 교육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국가공공노동 《학생들의 군사훈련의 길을 전진적으로 넓히는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군대와 지방의 각종 유관부서와 단위들이 학생들의 군사훈련사업규정을 더욱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10월 29일 《원격탐지위성-18》호를 좌윤러 예정된 제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위성-2》호(명)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의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한다.

구강장강 제2대교 개통

중국에서 10월 28일 구강장강 제2대교가 개통되었다.

다리의 총길이는 25.193km에 달한다.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농촌주민들의 먹는다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에서 농촌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자치구에서는 올해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35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관 개 면 적 확 장

중국의 하남성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관개면적을 늘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10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2억 5000만㎡의 확장의 물을 끌어 5만개㎡의 확장을 200만무 구 확장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중국의 운남성에서 무정형과

중 국 예 서

군사훈련강화조치

중국공무원 교육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국가공공노동 《학생들의 군사훈련의 길을 전진적으로 넓히는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군대와 지방의 각종 유관부서와 단위들이 학생들의 군사훈련사업규정을 더욱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위 성 발 사

중국에서 10월 29일 《원격탐지위성-18》호를 좌윤러 예정된 제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위성은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위성-2》호(명)운반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다.

위성은 주로 과학실험과 국토자원조사, 농작물수확도판정, 재해방지 등의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한다.

구강장강 제2대교 개통

중국에서 10월 28일 구강장강 제2대교가 개통되었다.

다리의 총길이는 25.193km에 달한다.

다리가 개통됨으로써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농촌주민들의 먹는다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에서 농촌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자치구에서는 올해 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35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먹는다문제를 해결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관 개 면 적 확 장

중국의 하남성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 관개면적을 늘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10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2억 5000만㎡의 확장의 물을 끌어 5만개㎡의 확장을 200만무 구 확장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중국의 운남성에서 무정형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공화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배루 단체들 성명 발표

배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가 10월 23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10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모든 합의들을 반복하게 위반하며 조선에 대한 핵전쟁도발행동을 더욱 악랄하게 강행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만 의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제거를 포함한 조선반도전체의 비핵화이다.

미국이 조선에 일방적인 선택 로기를 강요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전면적부이며 핵우세로 공화국을 굴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동대 행동은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다.

미국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합의리행을 계속 회피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강압과 침략전쟁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조선은 자주성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배루 제 인민간의 친선 및 연대성위원회가 10월 23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격화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회의 근원이다.

미국과 그 주주들이 남조선에

구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해제를 요구

로씨야국가회의가 최근 미국이 구바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문건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봉쇄는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제국을 결별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에서 살고있는 구바공민들과 제3국 공민들의 권리와 합법적리익을 억제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문건은 구바를 반대하는 무역경제 및 금융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유엔총회와 유엔성원국 국회들에 호소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 비난

남아프리카아프리카인종차별대회인민이 10월 28일 자기 나라 고위인사를 제멋대로 억류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 고위인사가 반인종주의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미국에 억류된것은 미국정부가 아직도 그를 포함한 남아프리카

유엔주재 베네수엘라상임대표가 최근 구바의 브렌카 라페냐와 나탈리아 라페냐를 개역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미국의 반유대행위를 규탄하는 유엔결의들이 채택되었음

구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해제를 요구

로씨야국가회의가 최근 미국이 구바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문건은 구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봉쇄는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제국을 결별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에서 살고있는 구바공민들과 제3국 공민들의 권리와 합법적리익을 억제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문건은 구바를 반대하는 무역경제 및 금융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유엔총회와 유엔성원국 국회들에 호소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처사 비난

남아프리카아프리카인종차별대회인민이 10월 28일 자기 나라 고위인사를 제멋대로 억류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 고위인사가 반인종주의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미국에 억류된것은 미국정부가 아직도 그를 포함한 남아프리카

유엔주재 베네수엘라상임대표가 최근 구바의 브렌카 라페냐와 나탈리아 라페냐를 개역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미국의 반유대행위를 규탄하는 유엔결의들이 채택되었음

중국의 교부 대변인 일본수상의 망언을 비난

중국의 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10월 28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수상의 망언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일본수상이 폭상《자위대》를 시찰하면서 중국이 무력을 통해 현 상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것을 용인할수 없다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조여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행

세계적인 동생산전망

올해 세계적인 동생산전망이 1790만에 달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4.7% 더 많은것으로 된다.

가 짜 악 요 인 한

세계적인 인명피해는 세계적으로 가짜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있다.

최근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의 악물들 수가운데서 33%가 가짜이며 그로 인해 해마다 100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특히 최근에 항생제와 암치료 등과 관련한 가짜악이 많이 늘어났으며 팔라리아를 치료한다 고 하는 가짜악이 매우 많아져서 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매해 약 20만명이 죽고있다고 한다.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가 10월 20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10월 20일 캐나다에서 진행되었다.

60개 나라와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선수, 예호가들이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남자경기에서 케니아선수가 2시간 05분 28초의 대회기록을 세워 1위를 하였으며 에티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남자경기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1위를 하였으며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다.

니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하였다.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가 10월 20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10월 20일 캐나다에서 진행되었다.

60개 나라와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선수, 예호가들이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남자경기에서 케니아선수가 2시간 05분 28초의 대회기록을 세워 1위를 하였으며 에티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남자경기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1위를 하였으며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다.

니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하였다.

국제마라손경기 대회 소식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가 10월 20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되었다.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10월 20일 캐나다에서 진행되었다.

60개 나라와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선수, 예호가들이

제38차 암스페르담파라손경기대회

남자경기에서 케니아선수가 2시간 05분 28초의 대회기록을 세워 1위를 하였으며 에티

2013년 토론토파라손경기대회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남자경기에서 에티오피아 선수가 1위를 하였으며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다.

니 여자경기에서는 케니아선수가 1위를 하였다.



뿌리깊은 미국의 도청작전, 국제적항의와 규탄

한때 미국에서는 《호적》이라는 암호로 된 도청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일마전 미국 조지 워싱턴총대회의 국가안전보장공문서만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헬남전경이 한창이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쟁을 반대하던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도청했다고 공개하였다. 그 대상에는 공민권운동가 킵사와 이젠 세계권투협회 회장인 수권보우 무함마드 알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1973년까지 계속된 《호적》도청작전은 이미전에 알려졌었지만 대상인물들이 문서에 의해 확정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헬남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지도자들이 미국적대력의 지원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어 도청작전을 시작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미국의 도청작전은 국제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도청작전이 오늘날도 계속되고있다는데 있다.

유럽등대 가를침수취자의 진행과정을 놓고 이에 대해 보자.

사실 브뤼셀에서 개막된 이번 수비차회에서는 경제문제에 토의하기로 계획되어있다. 그

한때 미국에서는 《호적》이라는 암호로 된 도청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일마전 미국 조지 워싱턴총대회의 국가안전보장공문서만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헬남전경이 한창이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쟁을 반대하던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도청했다고 공개하였다. 그 대상에는 공민권운동가 킵사와 이젠 세계권투협회 회장인 수권보우 무함마드 알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1973년까지 계속된 《호적》도청작전은 이미전에 알려졌었지만 대상인물들이 문서에 의해 확정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헬남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지도자들이 미국적대력의 지원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어 도청작전을 시작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미국의 도청작전은 국제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도청작전이 오늘날도 계속되고있다는데 있다.

유럽등대 가를침수취자의 진행과정을 놓고 이에 대해 보자.

사실 브뤼셀에서 개막된 이번 수비차회에서는 경제문제에 토의하기로 계획되어있다. 그

한때 미국에서는 《호적》이라는 암호로 된 도청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일마전 미국 조지 워싱턴총대회의 국가안전보장공문서만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헬남전경이 한창이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전쟁을 반대하던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도청했다고 공개하였다. 그 대상에는 공민권운동가 킵사와 이젠 세계권투협회 회장인 수권보우 무함마드 알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1973년까지 계속된 《호적》도청작전은 이미전에 알려졌었지만 대상인물들이 문서에 의해 확정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헬남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지도자들이 미국적대력의 지원을 받지 않는지 알고 싶어 도청작전을 시작하였다고 변명하였다. 미국의 도청작전은 국제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도청작전이 오늘날도 계속되고있다는데 있다.

유럽등대 가를침수취자의 진행과정을 놓고 이에 대해 보자.

사실 브뤼셀에서 개막된 이번 수비차회에서는 경제문제에 토의하기로 계획되어있다. 그

미국의 정탐행위 또다시 폭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한 정탐행위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엔이 넘겨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35명의 외국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최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를 가 인 상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전적으로 휘발유가격과 전기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9%, 7.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총 기 류 범 죄

미국의 메세지주에 있는 한 해군시설에서 10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사정경비를 서던 미군병사 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아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으로 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항의집회, 시위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그 무슨 특정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한 정탐행위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엔이 넘겨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35명의 외국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최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를 가 인 상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전적으로 휘발유가격과 전기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9%, 7.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총 기 류 범 죄

미국의 메세지주에 있는 한 해군시설에서 10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사정경비를 서던 미군병사 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아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으로 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항의집회, 시위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그 무슨 특정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한 정탐행위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엔이 넘겨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35명의 외국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최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를 가 인 상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전적으로 휘발유가격과 전기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9%, 7.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총 기 류 범 죄

미국의 메세지주에 있는 한 해군시설에서 10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사정경비를 서던 미군병사 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아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으로 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항의집회, 시위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그 무슨 특정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한 정탐행위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엔이 넘겨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35명의 외국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최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를 가 인 상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전적으로 휘발유가격과 전기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9%, 7.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총 기 류 범 죄

미국의 메세지주에 있는 한 해군시설에서 10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사정경비를 서던 미군병사 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아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으로 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항의집회, 시위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그 무슨 특정비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비밀한 정탐행위가 또다시 폭로되어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이 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엔이 넘겨준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35명의 외국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도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이 백악관, 국무부, 국방성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최근 미상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를 가 인 상

일본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 정부는 9월에 전적으로 휘발유가격과 전기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9%, 7.6%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총 기 류 범 죄

미국의 메세지주에 있는 한 해군시설에서 10월 2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사정경비를 서던 미군병사 자서 동료들을 향해 총을 쏘아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사건으로 시설은 임시 폐쇄되었다고 한다.

항의집회, 시위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당국이 그 무슨 특정비